

대화와 균형으로의 여정: 디트리히 본회퍼와 라인홀드 니버의 관계*

김현수(장로회신학대학교 강사)

I. 글을 열면서

II. 신학적 교류: 뉴욕에서의 첫 만남(1930~1931)

1. 전기적 배경
2. 니버의 수업에서 작성한 본회퍼의 페이퍼

III. 개인적 조연의 단계: 본회퍼가 니버에게 보낸 두 편지(1933~1934)

1. 전기적 배경
2. 두 편지의 내용

IV. 정치적 도움과 결단(1939)

1. 전기적 배경
2. 종교개혁 없는 개신교(Protestantism Without Reformation)
3. 순교자(Martyr) 본회퍼: 니버의 본회퍼 평가

V. 글을 맺으면서

* 본 논문은 2008년 11월 7일에 백석대학교에서 한국기독교 사회윤리학회와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공동 주관으로 열렸던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부족한 글에 대한 논평을 해 주신 김형민 교수와 유익한 질문을 해 주었던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 ABSTRACT •

This article deals with the biographical and theological relationship between Dietrich Bonhoeffer and Reinhold Niebuhr. For doing this, we divide their relationship into three phases: theological exchanges at Union Theological Seminary, New York(1930~1931), personal advice(1933~1934), and political assistance and decision(1939).

In the first stage, Bonhoeffer and Niebuhr become a critical dialogue partner for each other's theology and ethics. For Bonhoeffer, Niebuhr's socio-ethical concern lacks of dogmatic theology, while for Niebuhr, Bonhoeffer's Barthian dialectical theology has no any practical results in socio-ethical senses.

In the second phase, Bonhoeffer asks Niebuhr to give him help and advice in regard to the political circumstances of German society.

In the last stage, Niebuhr does his best for delivering Bonhoeffer from Hitler's hands. We come to a conclusion that through their friendship, both Bonhoeffer and Niebuhr get a balance between their theology and their ethics.

Key Words: Dietrich Bonhoeffer, Reinhold Niebuhr, theology, ethics, balance

I. 글을 열면서

1944년 1월 23일에 자신의 제자이자 동료인 베트게 부부(Renate and Eberhard Bethge)에게 쓴 편지에서,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를 폴 레만(Paul Lehmann)과 더불어 좋은 친구 중의 하나(a good friend of mine)라고 말한다.¹⁾ 이 글에서 발제자는 본회퍼에 초점을 맞추어, 그가 라인홀드 니버와 어떠한 과정으로 이러한 우정의 관계를 맺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본회퍼 전기 작가인 에버하르트 베트게에 따르면, 본회퍼의 인생과 사상을 극적으로 바꾼 전환점이 두 번 있었다. 중요한 점은 이 두 계기가 모두 본회퍼의 미국 여행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1930~1931년에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본회퍼는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신학자(a theologian)”에서 “기독교인(a Christian)”이 되는 인생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1939년 다시 미국을 방문해 몇 주간을 머물면서 가진 개인적인 성찰을 통해, “기독교인”에서 이제는 “시대를 위한 인간(man for his times)”이 되는 전환점을 갖게 된다.²⁾ 이에 따라서 베트게는 본회퍼의 생애와 신학의 발전을 “토대(Foundation),” “집중(Concentration),” 그리고 “해방(Liberation)”의 세 단계로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신학적으로 이 세 시기는 “교의학적(dogmatic),” “주석적(exegetical),” 그리고 “윤리적(ethical)”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³⁾

1) Dietrich Bonhoeffer, *Letters and Papers from Prison: The Enlarged Edition*, Ed. Eberhard Bethge (NewYork: Touchstone, 1997), 192.

2) Eberhard Bethge, “Turning Points in Bonhoeffer’s Life and Thought,” *Union Seminary Quarterly Review* 23, no.1(1967): 7.

3) Eberhard Bethge, “The Challenge of Dietrich Bonhoeffer’s Life and Theology,” *The Chicago Theological Seminary Register* 51, no.2(1963): 3.

재미있는 사실은 본회퍼와 니버의 관계 역시 이 본회퍼의 인생과 사상의 전환점과 거의 일치하게 세 차례의 교류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본회퍼와 니버의 첫 만남은 1930~1931년에 본회퍼가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 일종의 박사 후 과정을 위해 방문했을 때 이루어지는데, 이때의 교류 성격은 수업과 페이지로 이루어진 신학적 성격이 강하다. 그 후 본회퍼와 니버의 교류는 1933년과 1934년에 한 차례씩 본회퍼가 니버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견된다. 이하에서 언급되겠지만, 본회퍼는 이때부터 에큐메니컬 운동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독일국교회와 나치에 대항하는 투쟁의 시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 두 편지에서 이 시기 즈음에 그가 가졌던 고민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1939년 어간에 이루어진 교류에서는 나치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본회퍼를 구출하려는 니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 세시기의 특징을 따라 발제자는 이하에서 “신학적 교류,” “개인적 조언의 단계,” 그리고 “정치적 도움과 결단”의 제하에 양자의 관계를 짚어 보고자 한다.

먼저 밝혀둘 것은 이 작업이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 한계는 첫째, 발제자가 아는 한 본회퍼와 니버의 관계에 대하여 참고할만한 선행연구가 없고, 둘째 필자의 니버에 대한 연구의 부족으로 양자의 관계를 보다 폭넓고 심도 있게 다루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글에서 발제자는 본회퍼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양자사이에 이루어진 전기적, 신학적 교류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본 글은 후속 연구를 위한 자료 정리와 제공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II. 신학적 교류: 뉴욕에서의 첫 만남(1930~1931)

1. 전기적 배경

앞에서 밝혔듯이, 본회퍼와 니버의 첫 만남은 1930~1931년 사이에 본회퍼가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된 계기로 이루어졌다. 이때 니버는 1928년 이후로 유니온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다. 베트게에 따르면 본회퍼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뉴욕에 가게 되었다. 첫째, 막스 디스텔(Max Diestel)의 제안이 있었다. 베를린 대학의 신학생이었던 본회퍼는 1925년에 안수를 위한 필수과정으로 교회에서의 현장 사역을 시작한다. 그가 맡은 일은 그룬네발트(Grünwald)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이었다. 이때 이 교회가 속한 교구의 지도목사가 바로 막스 디스텔(Max Diestel)이었다. 디스텔은 교회일치운동의 차원에서 본회퍼가 외국에서의 경험이 필요하다면서, 영국과 미국에 다녀올 것을 제안한다. 둘째, 당시 베를린 대학 내에서는 미국의 학제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본회퍼가 이러한 학제를 경험하고 연구해 줄 것을 기대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본회퍼 자신은 미국의 신학수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처음에는 미국에 가는 것을 꺼려했다. 하지만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부에 대한 기대가 그의 미국행을 결정하는데 큰 계기가 되었다.⁴⁾

하지만, 본회퍼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미국에서의 경험은 그의 인생과 사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회퍼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 미국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은 비로소 “기독교인”이 되는 “위대한 해방(a

4) Eberhard Bethge, *Dietrich Bonhoeffer: A Biography (Revised Edi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0), 142~143.

great liberation)”의 경험을 하게 된다.⁵⁾ 미국의 경험으로부터 그는 성경의 세계, 특별히 산상수훈(the Sermon on the Mount)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 이 성경의 세계를 발견하기 전에, 본회퍼는 신학이라는 학문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열망 실현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경의 세계를 발견한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기도하지 않던 그가 매일 기도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 부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던 그가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교회와 목회사역의 갱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본회퍼가 말한 “위대한 해방”은 이러한 영적인 의미에서의 해방에 그치지 않는다. 그 해방의 진수는 삶과 행동으로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 사회-윤리적 의식의 각성이었다. 이에 대하여 본회퍼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아마도 내가 처음으로 해외에서[1930~1931년 미국 뉴욕에서] 받은 인상과 아버지의 인격에서 받은 최초의 의식적 영향으로 변한 것 외에, 내[본회퍼]는 [다른 어떤 사건에 의해] 크게 변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때[미국에서의 경험] 이후에 나는 말에 관한 것(phraseological)으로부터 실재적인 것(real)으로 [관심을] 전환하게 되었다.”⁶⁾

본회퍼가 여기서 말하는 “말에 관한 것”과 “실재적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Clifford J. Green의 해석에 따르면, “말에 관한 것”이란 “말들로만 이루어져서 삶과 통합되지(integral) 않는” 신학, 그리하여 “개인적 신앙으로 구체화되지 않고 학문적 경력으로만 존재하는 추상적인(abstract)” 신학을 의미한다. 반면에, “실재적인 것”이란 “삶에 뿌리 내려

5) Ibid., 205.

6) Bonhoeffer, *Letters and Papers from Prison*, 275.

지고(embedded) 삶을 형성해줄 수 있을 만큼” 하나가 된 신앙과 신학을 의미한다.⁷⁾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실재적인 것”의 발견은 그가 미국에서 독일로 돌아간 이후로 살아낸 “[유대인과 같이] 억압당하는 자들과의 연대와 세계 평화의 옹호(espousal)”를 위한 사회-정치적 실재에의 참여였다.⁸⁾

이와 같은 본회퍼의 생애와 사상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미국에서의 경험은 어떠한 것들이었는가?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경험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온다. 하나는 미국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교제를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교실에서 이루어진 교수들과의 신학적 대화를 통해서이다. 먼저 뉴욕에서 새로이 만난 친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네 사람이 있다. 스위스 개혁교회 목사로서 본회퍼에게 바르트와의 만남을 주선해준 Erwin Sutz, 후에 본회퍼와 가장 절친한 미국인 친구가 된 Paul Lehmann, 프랑스인으로서 평화주의자였던 Jean Lasserre, 그리고 흑인 친구였던 Frank Fisher가 바로 그들이다. 이 가운데 본회퍼의 “실재적인 것”에로의 전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두 사람이 바로 Lasserre와 Fisher였다. Lasserre를 통해 본회퍼는 자신이 독일에서 전혀 만나지 못했던 세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명령”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⁹⁾ 미국에 오기 전 젊은 본회퍼는 전쟁에 대하여 민족주의적인(nationalistic)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자신의 국민을 위한 사랑은 살인뿐 아니라

7) Clifford J. Green, “Editor’s Introduction to the English Edition,” in Dietrich Bonhoeffer, *Barcelona, Berlin, New York 1928-1931* (Dietrich Bonhoeffer Works, Vol.10), German ed. Reinhart Staats and Hans Christoph von Hase, English ed. Clifford J. Green, trans. Douglas W. Stott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8), 39.

8) Geoffrey B. Kelly and F. Burton Nelson, “Editor’s Introduction—Solidarity with the Oppressed: Bonhoeffer the Man,” in *A Testament to Freedom: The Essential Writings of Dietrich Bonhoeffer*, ed. Geoffrey B. Kelly & F. Burton Nelson (San Francisco: Harper San Francisco, 1995), 10.

9) Bethge, *Dietrich Bonhoeffer*, 153.

전쟁도 신성화 할”수 있다.¹⁰⁾ 하지만, Lasserre와의 만남을 통해 산상수훈의 평화의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본회퍼의 이러한 민족주의적인 관념은 사라진다. 대신에 그는 “교회공동체가 민족공동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¹¹⁾ 그리고 어느 민족의 교회공동체도 전쟁이라는 유혹에 빠져 자신이 보편적 교회공동체에 속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전 세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러한 세계주의적인 평화사상을 가지고 본회퍼는 독일로 돌아온 이후 에큐메니컬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평화의 옹호자로서 활동한다. 다음으로 Fisher는 본회퍼에게 미국에서의 흑인의 삶과 흑인 교회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었다. Fisher는 본회퍼를 뉴욕의 할렘가에 있던 Abyssinian Baptist Church에 소개해 주었다. 본회퍼는 거의 매주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 한편으로 본회퍼는 이 흑인교회에서 백인 교회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죄와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궁극적인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고, 독특한 흑인의 영성을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본회퍼는 흑인과의 개인적 접촉이 미국에서 경험한 “가장 중요하고 만족스러운(gratifying) 사건 중의 하나”라고 고백한다.¹²⁾ 다른 한편으로, 본회퍼는 이 교회의 경험을 통해서 인종주의가 “지난 세기 [미국] 교회의 실패의 불길한 징후들 중의 하나이며, 미래에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¹³⁾ 한 마디로 Fisher와 흑인교회의 도움으로, 본회

10) Dietrich Bonhoeffer, *Barcelona, Berlin, New York 1928-1931* (Dietrich Bonhoeffer Works, Vol.10), German ed. Reinhart Staats and Hans Christoph von Hase, English ed. Clifford J. Green, trans. Douglas W. Stott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8), 338.

11) Geoffrey B. Kelly, “An Interview with Jean Lasserre,” *Union Seminary Quarterly Review* 27, no.3(1972): 151.

12) Bonhoeffer, *Barcelona, Berlin, New York 1928-1931*, 315.

13) Bonhoeffer, *No Rusty Swords*, 112.

퍼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구체적인 역사적 실재들을 가진 [흑인의] 공동체적 경험”에 눈뜨게 되었다.¹⁴⁾ 이러한 사회적 실재들에 대한 의식이 본회퍼로 하여금 독일로 돌아간 이후 유대인 차별정책에 맞서게 하는 과위가 되어 주었다.

앞에서 암시했듯이 본회퍼의 “실재적인 것”에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전기는 교실에서 있었던 교수들과의 신학적 교류에 의해 마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두 교수가 바로 유니온 신학교에서 사회 윤리를 가르치고 있었던 Reinhold Niebuhr와 Harry F. Ward이다. 한 마디로 평가하면, Niebuhr와 Ward는 본회퍼의 신학적 지평이 사회 정치적 윤리의 세계로 넓어지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본회퍼와 니버 사이에 있었던 신학적 대화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니버가 본회퍼의 “실재적인 것”에로의 전환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2. 니버의 수업에서 작성한 본회퍼의 페이지

유니온에서 본회퍼는 12개의 과목을 수강한다.¹⁵⁾ 그의 미국 경험 보고

14) Ruth Zerner, “Dietrich Bonhoeffer’s American Experiences: People, Letters, and Papers from Union Seminary,” *Union Seminary Quarterly Review* 31, no.4(1976): 272.

15) 뉴욕에 도착한 첫 번째 학기에 5과목, 그리고 두 번째 학기에 7과목을 수강했다. 첫 번째 학기: (1) Philosophy of Religion 13: The philosophy of the Christian religion (Professor Lyman), (2) Philosophy of Religion 19: Religion and ethics(Associate Professor Niebuhr), (3) Systematic Theology 91: Seminar in philosophical theology (Professor Baillie), (4) Practical Theology 55: The minister’s work with individuals (Professor Coffin), (5) Missions 11: The present expansion of Christianity(Professor Fleming). 두 번째 학기: (1) Philosophy of Religion 18: Religions aspects of contemporary philosophy(Professor Lyman), (2) Systematic Theology 92: Seminar in philosophical theology(Professor Baillie), (3) Christian Ethics 42: Ethical issues in the social order(Professor Ward), (4) Christian Ethics 52a: Ethical viewpoints

서에 따르면, 본회퍼는 이 수업들 가운데 Reinhold Niebuhr와 Harry Ward 교수의 사회윤리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4개의 윤리 과목을 수강하는데, 이 가운데 2개의 과목이 니버 교수의 것이었고, 2개의 과목이 워드 교수의 것이었다. 니버의 두 수업은 본회퍼가 첫 번째 학기에 수강한 “종교와 윤리(Religion and Ethics)”와 두 번째 학기에 수강한 “[미국] 근대 문학에 나타난 윤리적 관점들(Ethical viewpoints in modern literature)”이다. 본회퍼는 특별히 후자 “[미국] 근대 문학에 나타난 윤리적 관점들”이 특히 “유익했다(informative)”고 회상한다.¹⁶⁾

현재 유니온에서 여러 과목을 수강하면서 작성한 본회퍼의 페이지 가운데 4개가 남아 전해진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가운데 2개가 그가 첫 번째 학기에 수강했던 니버의 수업 “종교와 윤리”과목을 위해 작성된 페이지라는 것이다. 하나는 “종교적 결정주의의 성격과 윤리적 결과들(The Character and Ethical Consequences of Religious Determinism)”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 은혜의 경험과 윤리적 삶(The Religious Experience of Grace and the Ethical Life)”이다. 나머지 2개의 페이지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적 하나님의 관념에 대하여(Concerning the Christian Idea of God)”로 Eugene Lyman 교수의 수업 “기독교 종교의 철학(The philosophy of the Christian religion)”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이 페이지는 The Journal of Religion 12 (1932): 177~85에 실렸다. 나머지 하나는 “철학적 신학에 관한 세미나” 시간에 John Baillie 교수의 부탁으로 발제했던 “위기의 신학과 그것의 철학과 과학에 대한 태도(The Theology of Crisis and Its Attitude toward

in modern literature(Professor Niebuhr), (5) Christian Ethics 52b: Ethical interpretations(Professor Ward), (6) Practical Theology 56: Parish administration (Professor Coffin), (7) Church and Community 16: The cooperation of the church with social and character-building agencies(Mr. Webber). 보다 상세한 과목설명을 위해 Bonhoeffer, Barcelona, Berlin, New York 1928~1931, 643~645를 참조하십시오.

16) Ibid., 318.

Philosophy and Science)”이다.

중요한 것은 유니온에서 보내던 시절에 본회퍼가 가장 바르트의 신학적 영향을 깊게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니버에 회상에 따르면, 1930년에 만난 본회퍼는 상당한 지적 능력과 깊은 신앙심을 가진 아주 뛰어난 (brilliant) 젊은 신학자로, 바르트 신학에 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였다. 17) Baillie 교수에게도 당시에 본회퍼는 “당시까지 [유니온에] 나타난 가장 확신 있는(convincing) 바르트의 제자였으며, 게다가 단호한 자유주의의 반대자”로 보였다.¹⁸⁾ 바르트의 제자로서 당시 본회퍼의 태도는 상당히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본회퍼에게 당시 미국의 신학과 교회는 실용주의와 사회복음의 깊은 영향을 받은 결과, 교의학으로서의 신학에 관심이 없었고, 온통 사회-정치 윤리적 관심에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본회퍼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특히 니버와 워드의 수업시간에 바르트와 루터의 개혁신학이 니버나 워드가 보여준 사회-정치 윤리적 관심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본회퍼의 보고에 따르면, 그가 작성한 “기독교적 하나님의 관념에 대하여”와 “위기의 신학과 그것의 철학과 과학에 대한 태도”는 바르트의 관점에서 신학적 기초를 소개한 것이며, 니버의 수업을 위해 작성된 두 페이지, “종교적 결정주의의 성격과 윤리적 결과들”과 “종교적 은혜의 경험과 윤리적 삶”은 이러한 신학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네 페이지의 공통주제일 수 있는 두 단어는 가능성(possibility)과 한계(limit)이다. 바르트와 유사하게 본회퍼

17) Reinhold Niebuhr, “Dietrich Bonhoeffer,” *Union Seminary Quarterly Review*, no. 1.3(1946), 3.; Reinhold Niebuhr, “The Death of Martyr,” 6(이 에세이의 출처는 확인할 수 없음)

18) Bethge, *Dietrich Bonhoeffer*, 158에서 재인용.

는 인간이 자신의 사고나 감정에 의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인식한다거나 윤리적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를 철학, 자유주의, 종교의 시도라고 본다. 그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이러한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인간이 자신의 죄, 한계성,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인식할 때에만 하나님이 인간의 지식과 삶, 자유를 위한 길을 열어주신다. 사실 이러한 “가능성-한계”의 사고는 이미 그의 베를린 대학 취임연설 “현대 철학과 신학에서의 인간학적 질문(The Anthropological Question in Contemporary Philosophy and Theology)”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연설의 결론부에서 본회퍼는 단호히 “가능성의 개념은 신학에 자리 잡을 수 없고, 그래서 신학적 인간학에도 자리 잡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¹⁹⁾ 이러한 관점에서 니버의 수업을 위해 작성된 두 페이지를 고찰하기에 앞서, 본회퍼의 미국 경험에 대한 보고서를 먼저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하다.

가) 본회퍼의 유니온 신학과 미국 기독교에 대한 평가

유니온 신학교에 다녀 온 본회퍼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공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첫째의 것은 교회연합사무소(Church Federation Office)에 보내진 공식적인 일종의 유학보고서이고, 다른 하나는 3페이지로 된 짧은 학문적 성격의 것으로, 특히 유니온 신학교에서 지낸 두 번째 학기에 대한 보고로 되어 있다. 유니온 신학교와 미국 기독교 전반에 대한 본회퍼의 전체적인 인상은 신학의 결여, 특별히 교의학(dogmatics)에 대한 무관심이다. 대신에 유니온의 신학과 미국의 기독교는 지나치게 실천신학에 경도되어 있다.

본회퍼에 따르면 유니온의 신학은 대략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

19) Bonhoeffer, *Barcelona, Berlin, New York 1928-1931*, 403.

째 그룹은 니버와 워드로 대표되며, 가장 활발하다(lively). 이 집단은 신학 자체보다는 “윤리 해석(ethical interpretation)”의 관점에서 경제와 정치의 문제들을 연구한다. 본회퍼에 따르면 이러한 신학적 경향은 사회적 의미에서 복음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지기에, 가장 급진적인 기독교 복음의 사회화(socialization)를 대변한다. 하지만 이 집단의 신학적 훈련이나 통찰은 사실상 “무(zero)”에 가까우며, 그 신학적 태도는 “정당화되지 못하며 순진하다(unjustified and naive).”²⁰⁾ 두 번째 집단은 베일리(John Baillie) 교수가 대표자인데, 이들은 회중신학(congregational theology)을 추구한다. 본회퍼에 따르면 이들에게서 확고한 신학적 입장을 찾아내기 어렵고 리츨과 헤르만, 그리고 스코틀랜드 전통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유주의와 옥스퍼드 운동의 대표자인 부크만(Frank Buchman) 사이에서 머뭇거린다. 이들의 근본적인 특징은 “계몽주의의 이성주의(Enlightenment rationalism)”이다.²¹⁾ 마지막 집단의 대표자는 라이먼(Eugene William Lyman)과 엘리엇(Harrison Sacket Elliot) 교수다. 이들의 주된 관심은 종교철학에 있다. 이러한 철학적 접근은 “과학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상당한 호소력을 갖고 있었다. 본회퍼가 보기에 이 접근은 철학적이고 조직적인 기독교의 세속화(secularization)이다.²²⁾

본회퍼가 볼 때 미국의 전반적 기독교에 대한 인상도 유니온의 신학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교단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거의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다. 미국 기독교는 설교를 사회 정치적 상황에 대한 논평과 동일시한다. 그래서 설교의 성격이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이상주의(an ethical and social idealism)”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미국 교회는 하나의 기독교적 진보라고 생각한다.²³⁾ 하지만 본회퍼가 볼 때, 이러한 설교는

20) Ibid., 308.

21) Ibid.

22) Ibid., 308.

다양한 사회적 주제에 대한 나열일 뿐이지, 진정으로 중요한 복음, 십자가, 죄, 그리고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상실한 것이다.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본회퍼가 볼 때 미국의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아니라, “사회적 실체(social entity)이다.”²⁴⁾ 즉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들이 사귀고 교제하는 장소로 변모해 버려서 교회의 진정한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기독교는 “설교, 신앙고백, 교리, 교회, 그리고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한다.”²⁵⁾

본회퍼의 결론은 유니온의 신학적 정신(spirit)은 “미국 기독교의 세속화(secularization) 과정”을 촉진시키며, 미국 기독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학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⁶⁾ 그렇다면 여기에서 본회퍼가 말하는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바울과 루터신학이 말하는 인간의 유한성, 즉 죄와 용서에 관한 교리이다. 본회퍼에 따르면 유니온의 학생들은 본회퍼에게 어떻게 그가 바울에게 돌아갈 수 있는가를 물었으며, 유니온의 어떤 교수도 이신칭의(justification by faith)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회퍼가 보기에 유니온과 미국 전체의 신학적 정신은 기독교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한다. 바르트의 변증법적 신학에 깊은 영향을 받은 본회퍼에게는 보기에 사회정치적 관심에 치우친 사회윤리와 실천신학에 경도되어 있는 유니온을 중심한 미국의 신학이 일종의 “종교(religion)”로 보였던 것이다.²⁷⁾

23) Ibid., 313.

24) Ibid., 317.

25) Ibid., 315.

26) Ibid., 309.

27) 본회퍼의 판단에 따르면 미국의 신학과 기독교가 사회복음의 관점에서 사회윤리와 실천 신학에 경도된 이유는 미국의 독특한 철학적 전통인 실용주의(pragmatism)에 있다. 실용주의의 기본적인 진리관은 유용성에 있다. 다시 말해 진리는 타당한(valid)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용하는(work)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역시 타당한 진리가 아니라 교화적인(effective) 진리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하여 스스로의 유용성

나) 종교적 결정주의의 성격과 윤리적 결과들

이 짧은 페이퍼는 니버의 수업 “종교와 윤리(Religion and Ethics)”에 제출된 첫 번째 것이다. 이 페이퍼는 독일어로 작성되었는데, 니버가 독일어를 말하고 읽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페이퍼에서 본회퍼는 철학적 결정론(philosophical determinism), 일반적인 종교적 결정론(general religious determinism), 그리고 기독교적 결정론(Christian determinism)의 기본적인 특징과 그것들의 윤리적 결과들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첫 번째로, 철학적 결정론은 인과관계(causality)의 관념에 근거한다. 이 결정론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사건의 나타난 결과만 볼 수 있고, 그것을 발생시킨 원인은 그 자체로는 알 수 없다. 다시 말해 이 결과에 대한 윤리적, 종교적 평가는 유용성이나 행복과 같은 개념들에 의해 어떤 사건의 발생이 설명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본회퍼에 따르면 이와 같이 철학적 결정론은 세상에서 발생한 일 에 대한 설명적(explanatory)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윤리적, 종교적 문제와는 무관하다(irrelevant).

두 번째로, 일반적인 종교적 결정론은 세상을 설명하기보다는 정당화하려 한다. 이 결정론은 하나님을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 선하고 악한 모든 일의 궁극적 원인으로 본다. 모든 악 배후에는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에, 여기서는 근본악(radical evil)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이 결정론의 문제는 “나”라는 주체가 하나님을 자신의 처분대로(at my disposal) 세상에서 발생하는 불행을 “마르게(rightly)” 설명하거나 세상

(usefulness)을 입증해야 하며, 자신의 행동을 통해 세상 속에서 사회적 진보를 이루어가는 성장해 가는(grows)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사회복음주의와 같이 사회윤리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본회퍼에 따르면 이러한 실용주의적 기독교는 유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울이나 루터 신학의 이신칭의에 근본적으로 관심이 있을 수 없으며,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일뿐 아니라 인간중심주의적인 프로타고라스(Protagoras)의 신봉자들일 수밖에 없다. Ibid., 311.

에서 하나님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나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으로서 “세상의 원인”으로 이용될 뿐, 창조자로 생각되지 않는다. 심리학적 입장에서 볼 때, 종교적 결정론에서는 “세상의 칭의를 하나님께서 선포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에, [내가 내 안에서] 악 그 자체를 해석하고, 내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세상을 정당화하는 가능성(possibility)”을 소유한다.²⁸⁾ 그러므로 이러한 결정론은 결코 기독교적이지 않다.

기독교적 결정론은 유일한 능동자(efficacy)로서 하나님과 믿음에 의한 칭의를 긍정한다. 이 결정론에서 주요관심은 세상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상태”이다.²⁹⁾ 이 관심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종교적 결정론에서처럼 나에게서 올 수 없고, “외부로부터(from outside),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 결정론은 세상의 칭의에 관한 하나님의 배타적인 자유에 관심한다.³⁰⁾ 이 입장에서 악은 실재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고 분리되는 것이다. 이러한 악으로부터의 해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가능하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자신의 능력으로 인간을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나님을 위해 자유롭게(free from the world and for God)” 만든다.³¹⁾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점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guidance)는 오직 세상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인식될 수 있다고 본회피는 결론 내린다.

니버는 이 페이퍼에 대하여 몇 줄로 평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에

28) Ibid., 442.

29) Ibid.

30) Ibid.

31) Ibid., 444.

대한 본회퍼의 견해에 의문을 제시한다.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인도에 관한 질문이 너무도 피상적으로(cursorily) 다루어졌다. 칼빈은 하나님 관념의 이 측면을 너무 강하게 주장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적 결정론과 하나님의 배타적 행위성(activity)에 대한 기독교 믿음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³²⁾ 이 평가는 본회퍼가 칼빈과 같이 지나치게 하나님의 은혜와 행위의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인간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한 나머지 일반적인 종교적 결정론에서처럼 악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즉 인간의 행위가 완전히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면, 악의 문제 역시 종교적 결정론에서처럼 하나님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질문이다.

다) 종교적 은혜의 경험과 윤리적 삶

앞의 페이지와 유사하게 두 번째 페이지 “종교적 은혜의 경험과 윤리적 삶”에서도, 본회퍼는 은혜에 대한 심리학적(psychological) 해석과 신학적(theological) 해석을 비교하면서,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초월성을 강조한다. 이 페이지에서 우리는 바르트의 자유주의 혹은 종교에 대한 비판과 은혜의 초월성에 대한 강조가 본회퍼에게 끼친 영향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은혜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이란 자유주의의 견해이다. 이 견해는 은혜를 하나의 심리학적 실재,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대상화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하나의 사실(fact)”로 본다.³³⁾ 여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초월성은 인간의 내재적 경험 안에서 포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따라

32) Ibid., 440, note [1].

33) Ibid., 445.

서 심리학적 은혜의 해석은 “하나님같이 되려는 인간의 시도로서, 즉 행위, 윤리학, 종교에 의한 청의로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다.³⁴⁾

이러한 심리학적 은혜의 견해가 윤리적 생활에 미치는 결과는 어떠한가? 은혜를 심리학적 실재로서 소유한 인간은 스스로가 윤리적 삶을 구성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소유하게 된다. 본회퍼에 따르면 두 가지의 윤리적 삶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율법적인(nomistic) 방식이다. 여기서 은혜의 내적 경험을 이미 소유한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자신이 준수해야 할 하나의 고정된 명령(fixed commandment)을 발견한다.³⁵⁾ 예를 들어 유대 정통주의와 가톨릭 교회는 은혜의 경험을 통하여 도덕법을 산출하였다. 그들에게 이 도덕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객관적인 임재”로 생각된다.³⁶⁾ 따라서 이들에게는 고정된 신적 도덕법의 체계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둘째는 율법적인 방식과 정반대의 경우인 도덕폐기론(antinomism)이다. 도덕폐기론은 은혜를 법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며, 오직 은혜에 의한 삶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경건주의(quietism)는 내적 경험을 통해 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은혜 외에는 아무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본회퍼의 판단에 따르면, 절대적 율법주의도, 아무런 법도 인정치 않는 도덕폐기론의 방식도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결여하기 때문에 윤리적이지 않다(unethical).

은혜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심리학적 해석을 해체한다. 다시 말해 은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려는 모든 인간의 노력에 제동을 건다. 은혜는 인간의 모든 사고와 감정을 초월해(transcendent) 있기 때문에,

34) Ibid., 449.

35) Ibid., 446.

36) Ibid., 447.

인간의 경험 안에서 소유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은혜의 본질은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의 이성적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에, 은혜는 경험될 수도 없고, 상상될 수도 없고, 사고될 수도 없고, 오직 믿어진다(believed).”³⁷⁾ 바르트에게서와 마찬가지로, 본회퍼는 은혜의 행동주의(actualism)를 말한다. 부연 설명하면 은혜는 인간이 소유가능하지 않도록 매순간마다 새롭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용서하므로, 인간은 매순간마다 이 은혜를 믿을 수밖에 없다. 은혜는 본질적으로 소유 가능한 실재로서의 은혜(being and remaining grace)가 아니라, 언제나 “다가오는 은혜(coming grace)”이다.³⁸⁾ 이러한 은혜의 관점에서, 인간의 행위는 언제나 은혜의 행위 혹은 신앙의 행위(act of faith)이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행위는 어떠한 의미에서 윤리적 삶이 되는가? 본회퍼는 은혜가 윤리적 삶의 토대로서 인간을 자유하게 한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적는다.

은혜는 인간을 자신으로부터 [그의 종교, 그의 윤리적 삶 등에 대한 신뢰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자유롭게 만든다. 이 은혜는 매순간마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며(point) 인간을 윤리적이게 하는 가능한 토대 - 즉 하나님 자신을 제공한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한 자유롭다. 이러한 관계(reference)에서 인간의 전 실존이 실제로 접촉된다면, 세상에서 인간의 행위는 윤리적이어야만 하고 은혜의 실재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 신앙 안에서 은혜는 율법주의와 도덕폐기론으로 결과지어지는 “대상화된” 은혜로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자유롭고 동시에 책임적이게 하는 항상 “다가오는 은혜”로서 유일하고 새로운 인간 삶의 토대(foundation)가 된다.³⁹⁾

37) Ibid., 450.

38) Ibid.

39) Ibid., 450-451.

그러므로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여 있을 때, 윤리적인 삶을 위한 참된 토대를 갖게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니버는 본회퍼의 페이퍼 마지막 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간략한 평가를 적고 있다. “당신[본회퍼]과 같이 은혜를 초월적인 것으로 만드는 경우에, 내[니버]는 어떻게 당신이 윤리적 중요성을 그 은혜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적 경험일 수 있으나, 그것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을 수 있는 행동들에서 나타나지 않는 한 윤리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의 행동을 결과의 관점에서 측정하는 것 외에 순전히 동기(motives)의 관점에서만 판단하는 ‘윤리적인 것’에 대한 어떤 해석도 윤리적 삶으로부터 그 내용을 박탈하며, 그 삶을 순전히 형식적인 것(formal)으로 만들어 버린다.”⁴⁰⁾ 여기서 니버는 본회퍼의 은혜의 신학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만일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행동으로 구체화되지 못한다면, 그의 은혜의 신학은 실제의 세계와 접촉하지 못하는 추상화된 이론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니버의 비판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회퍼와 니버는 존재와 행동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회퍼가 보기에 기독교 윤리는 먼저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선행한다. 즉 존재가 실천의 문제에 선행한다. 예를 들어 본회퍼는 “위기의 신학과 그것의 철학과 과학에 대한 태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의 새로운 명령법(imperative)”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직설법(indicative)”의 계시, 다시 말해 하나의 새로운 “당위(you ought)”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존재(you are)”의 계시라고 적는다.⁴¹⁾ 반면에 니버의 본회퍼의 페이퍼 비판에서 추론해 보면, 니버에게는

40) Ibid., 451, note [13].

행위와 실천의 문제가 존재의 문제보다 우선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그에게는 구체적인 사회-정치 문제에 직면하여 행동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보다 중요한 윤리의 과제로 인식되었던 듯하다. 본회퍼는 이러한 신학은 교의학을 결여하기 때문에, 순박하고(naive)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보았듯이 본회퍼는 니버의 사회 정치적 접근이 상당히 유익한 관점을 제공해 주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윤리와의 만남은 본회퍼에게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그의 생애와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 마디로 그를 실제의 세계로 인도했으며, 그리하여 히틀러와 나치에 대항하는 사회-정치적 신학자요 행동가가 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이다.

III. 개인적 조언의 단계: 본회퍼가 니버에게 보낸 두 편지(1933-1934)

1. 전기적 배경

앞에서 보았듯이 미국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본회퍼는 “말에 관한 것”에서 “실재적인 것”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그에게 이 “실재적인 것”이란 산상수훈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의미했다. 그런데 그가 산상수훈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삶이란 어떤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으면서(uncompromising), 평화와 정의의 길을 펼쳐나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1935년 자신의 형이었던 Karl-Friedrich에게 적은 편지에서 본회퍼는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평화와 사회 정의,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적고 있다.⁴²⁾ 1931년에

41) Ibid., 464.

42) Bonhoeffer, *Dietrich Bonhoeffer*, 205.

이 메시지를 가지고 독일로 돌아온 본회퍼는 곧바로 히틀러를 지지하던 독일 기독교인들(German Christians)과 나치에 대항하여 싸우는 데 적극 나섰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본회퍼의 이러한 투쟁은 교회 투쟁(Kirchenkampf)에 참여함으로써 시작된다. 1931년에 그가 독일로 돌아왔을 때는 그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의 상황보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히틀러의 나치가 점점 실세를 장악하기 시작했고, 교회적으로는 나치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blood and soil)를 지지하는 독일 기독교인들이 그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본회퍼는 이러한 국가와 교회의 민족주의화가 전 세계의 평화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판단 하에, 1932년부터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하여 기독교인은 평화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외침으로써 히틀러와 독일 기독교인들의 민족주의에 제동을 걸고자 한다. 그는 평화가 당시대를 위하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가 반드시 따라야 할 가장 긴급한 일이라고 역설한다. 나아가 나치와 독일 기독교인들의 민족주의에 반대하면서, 세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든 민족적, 정치적, 사회적, 혹은 인종적 한계들을 넘어” 모든 민족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⁴³⁾

이러한 외중에 본회퍼는 자신이 말하는 “1933년의 위기의 시기”를 맞이한다. 이 위기의 시기는 1933년 1월 30일에 히틀러가 독일의 절대자가 되는 것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본회퍼는 이 사건은 곧 전쟁의 시작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당시에 거의 유일하게 본회퍼는 다음날에 있는 라디오 연설에서 히틀러에게 절대권을 제공한 지도력 원리(leadership principle)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본회퍼에 따르면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www.kci.go.kr

43) Bonhoeffer, *A Testament to Freedom*, 227~228.

가지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 없고, 오직 자신이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여 백성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일 어느 한 개인이 절대적 권위를 요구한다면, 그는 하나님ی 되려는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신을 일종의 신으로 만드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멸망할(perish) 것이다.”⁴⁴⁾ 본회퍼의 투쟁은 1933년 4월 7일의 아리안 조항(Aryan Clause)의 법제화로 더 강화된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나치는 유대인들이 모든 공무원의 직위를 가지고 일하는 것을 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독일 기독교인들은 “이질의 파”를 가진 민족이 교회의 강단에 서는 일을 금해야 한다고 선포했다. 본회퍼는 이러한 반-유대주의가 인종차별의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라 투쟁하였다. 그는 자신의 유명한 에세이 “The Church and the Jewish Question”에서 “세례받은 유대인은 교회의 성원”이라고 선언하는 동시에,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는 “유대인과 독일인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서 있는 곳에 있다; 바로 여기에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판명해주는 증거가 있다”라고 주장한다.⁴⁵⁾ 이러한 방식으로 본회퍼는 유니온의 경험을 통해 자극받은 신념, 즉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에 참여한다.

하지만 본회퍼의 투쟁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독일교회와 국가는 점점 더 히틀러의 것이 되어가고 말았다. 특히 7월에 있었던 교회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독일 기독교인들은 히틀러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the Nazi ideology of blood and soil)를 교회에 점점 더 이식하기 시작했고, 9월 마침내 히틀러의 아리안 조항을 수용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회퍼는 더 이상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그리

44) Bonhoeffer, *No Rusty Swords*, 204.

45) *Ibid.*, 229.

하여 본회퍼는 그렇게도 꿈꾸던 교수의 길을 버리고, 1933년 11월에 영국으로 향한다. 런던에서 그는 한편으로는 독일인들의 교회를 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계속적으로 교회투쟁에 기여한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본회퍼는 니버에게 두 통의 편지를 보낸다. 하나는 1933년 2월에 베를린에서 보낸 편지이고, 다른 하나는 1934년 7월에 런던에서 보낸 것이다. 이 편지에는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간결하게 당시의 시대적 정황이 어떠하였는가와 그에 대한 본회퍼의 평가가 나타난다.

2. 두 편지의 내용

1933년과 1934년에 본회퍼는 니버에게 두 통의 편지를 쓰게 된다. 두 통 다 그의 사촌인 Hans Christoph von Hase와 관련한 사적인 성격이 강한 편지였기에, 본회퍼와 니버의 사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한 단서가 된다. Hans Christoph von Hase는 본회퍼의 어머니 파울라(Paula nee von Hase)의 오빠이며 목사였던 Hans von Hase의 아들이었다. 1924년 여름 학기부터 괴팅겐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였으나, 당시 바르트의 강연을 듣고 감동을 받아 마부르그(Marburg) 신학교로 전학하였다. 그리하여 폰 하세는 본회퍼에게 바르트의 신학을 소개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마부르그에서 가르치던 하이데거의 수업에 참여하면서, 본회퍼에게 하이데거의 존재를 알리고 읽을 것을 적극 권유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회퍼는 자신의 두 번째 저작 『존재와 행동(Act and Being)』에서 하이데거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는 기초를 닦은 것으로 보인다.⁴⁶⁾

1933년 2월 6일 편지는 일종의 추천서이다.⁴⁷⁾ 여기서 본회퍼는 니버에

46) Bethge, *Dietrich Bonhoeffer*, 133.

게 Hans Christoph von Hase가 뉴욕 유니온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한다. 본회퍼에 따르면, 폰 하세는 상당히 박식하고(well-informed), 주의가 깊고, 사교적이며 훌륭한 판단력을 소유한 젊은이다. 따라서 그가 유니온에서 공부할 기회를 갖는다면, 유니온 신학교로서도 유익할 뿐 아니라 이후에 폰 하세의 사역을 통해 독일교회도 좋은 배움을 갖게 될 것이다. 본회퍼의 추천으로, 폰 하세는 본회퍼의 뒤를 이어 1933~1934년 학기에 뉴욕 유니온에서 공부하게 된다.

히틀러가 집권한 후 일주일 후에 작성된 이 편지에서 본회퍼는 니버에게 독일의 상황을 짧게 전달한다. 본회퍼는 앞으로 독일에 상당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나타날 것을 예견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무서운 문화적 야만화(a horrible cultural barbarization)”의 위협이다. 48) 본회퍼가 의미한 야만화가 무엇인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이어진 문장으로 미루어 보면 공산주의를 몰아내자는 핑계로 재무장(armament)의 기치를 내세운 히틀러의 민족주의(nationalism) 혹은 군국주의의 명령인 것으로 보인다. 본회퍼는 이러한 민족주의의 명령을 따르는 독일국민이 너무 순진하며, 이에 대한 독일교회의 입장도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염려한다. 본회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에 대한 엄청난 인권침해가 나타날 것을 예견한 듯 보이며, 그래서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려는 운동으로 시작된 미국의 시민자유연합(Civil Liberties Union)을 독일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이러한 시민운동에의 필요성과 존재는 본회퍼가 유니온에서 공부할 때, 니버와 워드를 통해 얻은 사회 윤리적 지식으로부터 도움 받았음이 분명해 보인다.

1934년 7월 13일의 편지는 Hans Christoph von Hase가 뉴욕에서 돌아

47) Larry Rasmussen, *Dietrich Bonhoeffer: Reality and Resistanc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218.

48) Ibid.

와 본회퍼에게 인사차 방문한 후 니버에게 보내진 것이다.⁴⁹⁾ 이 편지에서 본회퍼는 먼저 니버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준 감사함도 모르고, 오랜 동안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미안함의 뜻을 전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관해 니버에게 조언과 도움을 구한다. 먼저, 본회퍼는 정치적인 이유로 독일에서 추방당한 유대인 학생들과 유사한 이유로 대학에서 추방당한 다른 학생들이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새로운 직업을 구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묻는다. 특히 그는 법률가이며 전에 Republican Student Society의 의장이었던 한 학생과 히틀러의 수용소에서 혹독한 고난을 당한 바 있는 작가 Armin T. Wegner를 도와줄 것을 니버에게 특별히 부탁한다.

다음으로 본회퍼는 독일교회의 상황을 간단히 적는다. 특히 당시 Interior Minister로서 히틀러의 정책을 교회가 받아들일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던 Wilhelm Frick을 거명하면서, 이제 나치에 대항하여 독일에 문화전쟁(Kulturkampf)이 일어나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회퍼는 소위 “손상되지 않은(intact)” 교회라 주장하면서, 정치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독일내의 정통교회(orthodox Church)가 히틀러를 공공연히 지지하는 Ludwig Muller의 독일국교회보다 더 잠재적으로 나치 국가에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한탄한다. 그에 의하면, 바로 이때 명확한 투쟁 노선이 산상수훈에 의해서 마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부분적으로 회복된 종교개혁 신학에 근거하여 산상수훈[즉, 예수를 따라 정의와 평화를 위한 투쟁에 참여하는 정신]이 다시 기억되어야만 하는 때가 다가왔다는 것이다.⁵⁰⁾

마지막으로 본회퍼는 자신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의 계획

49) Ibid., 219~220.

50) Ibid., 220.

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그는 당시 산상수훈에 관한 글을 쓰느라 바쁘다고 이야기하는 동시에, 그 와중에도 니버의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를 “아주 관심 있게” 읽고 있다고 적는다. 그리고 앞으로 인도에 가서 Gandhi를 만나서, 독일의 상황에 대한 조언과 교훈을 얻고 싶다고 적으면서 편지를 맺는다.

이상의 편지에서, 우리는 1933년과 1934년 사이에 적극적으로 독일교회와 국가의 나치화에 투쟁하던 본회퍼에게 니버가 이 투쟁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도움과 조언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정치적 도움과 결단(1939)

1. 전기적 배경

1939년에 본회퍼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가 그렇게도 애착을 들이던 Fikenwalde의 신학교가 1937년 10월에 나치에 의해 강제로 폐교를 당하고 말았다. 더욱이 그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고백교회조차도 1938년 이후로 히틀러에게 충성서약을 하는 등 그 본질적 의미를 상실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회퍼는 더불어 투쟁할 친구도 없고, 찾아갈 교회도 잃은 거의 외톨이와 같은 처지가 되고 말았다. Lehmann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본회퍼는 독일을 벗어난 지역에서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를 느꼈다.⁵¹⁾ 그리하여 본회퍼는 다시 한 번 뉴욕

51) Paul Lehmann, “Commentary: Dietrich Bonhoeffer in America,” *Religion in Life* 30, no.4(1961): 617.

을 방문할 계획을 세운다. Chichester의 Bishop Bell에게 1939년 3월 13일과 25일에 보낸 편지에서 그가 밝힌 공식적인 이유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⁵²⁾ 첫째는 독일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고백교회의 대외접촉이 어려워져 자신이 외국에 있으면 에큐메니컬 운동에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시급했는데, 그것은 본회퍼가 곧 징집될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다. 베트게에 따르면 1938년 11월 3일에 “군대 등록 기록(Military Registration Record)” 때문에, 본회퍼는 경찰서에 가서 자신의 거주지를 신고해야 했다.⁵³⁾ 이것은 징집의 시기가 곧 있으리라는 것을 예기했다. 이 문제가 본회퍼를 심각하게 괴롭혔다. 본회퍼는 이미 정치적 상황이 새로운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대에 징집된다는 것은 자신이 반대하던 히틀러를 위해 그리스도인 형제와 자매를 향해 총을 겨누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양심상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고뇌를 본회퍼는 Bishop Bell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언젠가 독일을 떠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제 나이 대의 남자가 올해 의무 병역에 소집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제가 전쟁에 참가한다는 것은 양심적으로 불가능한 듯합니다 …… 사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무기를 든다면, 제가 가진 기독교적 신념을 해치는 일이 됩니다.” 라고 적는다.⁵⁴⁾

본회퍼의 염려는 곧바로 현실이 되었다. 1939년 5월 22일에 병역 소집에 응하라는 통지를 받은 것이다. 이 위기의 순간에, 본회퍼는 한편으로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해 병역 소집을 일 년 연기하는데 성공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미국으로 향하기 위해 니버에게 도움을 청한다. 이때 니버

52) Bonhoeffer, *The Way to Freedom*, 203~206.

53) Bethge, *Dietrich Bonhoeffer*, 634.

54) Bonhoeffer, *The Way to Freedom*, 205~206.

는 1939년 4월부터 자신의 친구였던 스코틀랜드 신학자 John Baillie의 도움으로 기포드 강연을 하기 위해 에딘버러 대학에 머물고 있었다. 본회퍼 역시 같은 해 3월과 4월(니버는 7월로 기억하지만, 이때에 본회퍼는 이미 미국에서 돌아왔다)에 영국에 머물며 고백교회를 대표하여 영국에서 Bishop Bell과 Visser't Hooft 같은 세계교회협의회 지도체들을 만나고 있었다. 니버에 따르면 이때 본회퍼와 만날 기회를 가졌다. 니버와의 만남의 자리에서 본회퍼는 히틀러가 곧 폴란드를 침공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히틀러와 나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던 자신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⁵⁵⁾ 그리고 이 자리에서 본회퍼는 니버에게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도움을 청했던 것 같다. 그래서 니버는 즉시 유니온 신학교와 자신의 제자이자 본회퍼의 절친한 친구였던 레만(Paul Lehmann)에게 이 일의 추진을 위해 서신들을 보낸다. 이러한 서신들에 기록된 주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The Letters between Niebuhr and Leiper

1939년 5월 1일에 니버는 자신의 동료인 Henry Leiper에게 본회퍼를 위한 초청장을 마련해줄 것을 부탁하는 편지를 보낸다. 이 편지에서 니버는 본회퍼가 6월에 있을 군 소집 명령을 거부할 것이며, 고백교회를 대표해 미국에 가서 독일의 상황을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전한다. 이 일을 위해 니버는 라이퍼에게 자신이 대학에 자리를 마련해주기 이전에, 학생운동이나 교회 등에서 본회퍼를 강연자로 초청해 줄 수 있는가를 알아보아 줄 것을 부탁한다. 니버는 본회퍼가 독일의 어려운 상황에서 “투쟁의 정신”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의 미국 방문은 본회퍼 자신뿐 아니라 초청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값진 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니버

55) Niebuhr, “The Death of Martyr,” 6.

는 본회퍼에게서 들은 말을 인용하여 시간이 급박하다는 말을 덧붙인다.⁵⁶⁾ 상황의 급박성을 인식한 라이퍼는 니버의 편지를 받자마자 1939년 5월 11일 날짜로 본회퍼에게 초청의 편지를 보낸다. 이 편지에서 라이퍼는 본회퍼가 Central Bureau of Interchurch Aid와 유니온 신학교의 도움으로 뉴욕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알린다. 그는 본회퍼의 주요 사역의 내용은 컬럼비아(Columbia)와 유니온 신학교에서 목회사역과 설교, 그리고 강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리고 라이퍼는 이러한 본회퍼의 사역을 적어도 2년 혹은 3년 정도를 보장해 줄 것을 약속한다. 마지막으로 라이퍼는 본회퍼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6월 중순까지는 뉴욕에 도착해 줄 것을 제안하며, 유니온의 주요한 교수들이 본회퍼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한다. 1939년 5월 22일에 라이퍼는 이렇게 진행된 상황을 영국에 있던 니버에게 간략하게 보고한다.⁵⁷⁾

나) The Letters between Niebuhr and Lehmann

라이퍼에게 편지를 보낸 10일 후, 니버는 유사한 목적으로 Paul Lehmann에게도 편지를 보낸다. 이 편지에서 니버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본회퍼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 한다. 자기 대신에 위원회를 만들어, 자신을 의장으로, 그리고 레만을 자신의 비서로 표기하여 본회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여러 신학교와 대학에 등사판 편지(mimeographed letter)를 보내어 알아보아 달라고 부탁한다. 뿐만 아니라 니버는 레만에게 초청의 글을 본회퍼에게 보낼 때, 너무 많은 내용을 상세하게 적지 말라고 부탁한다. 이럴 경우에

56) Bonhoeffer, *The Way to Freedom*, 211.

57) *Ibid.*, 219.

본회퍼가 독일을 떠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본회퍼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적는다. 이런 정도로 니버의 부탁은 상당히 세심했다.⁵⁸⁾

니버의 편지를 받은 레만은 즉시 본회퍼를 위한 여러 사역의 장을 알아본다. 우선 자신이 재직하던 엘름허스트 대학에서 네 차례의 사순절 설교(Four Lenten sermons)를 부탁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니버가 부탁한 대로 니버를 의장으로 기록하면서, 3~40개의 기관에 본회퍼를 위한 사역의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의 편지를 보낸다. 이 편지에서 레만은 본회퍼가 가장 유능한 젊은 신학자 가운데 한 명이고, 현재 위기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독일에서 가장 용기 있게 기독교 신앙을 체현한 사람이며, 신학과 철학, 그리고 당시 독일의 기독교 상황을 가장 신뢰할만하게 다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강의나 설교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한다.⁵⁹⁾ 동시에 레만은 1939년 5월 27일에 본회퍼에게 일종의 초대 의 편지를 보낸다(본회퍼는 이 편지를 받아보지 못한 채 독일을 떠난다). 이 편지에서 레만은 본회퍼가 뉴욕에 온다는 소식에 기뻐하면서, 본회퍼가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 종교학부에서 1939~1940년 학기에 강의를 해 줄 수 있는가를 질문한다. 무엇보다도 본회퍼의 철학과 신학에 대한 접근을 자신의 학생들이 들을 가치가 있다고 적는다.⁶⁰⁾ 1939년 6월 28일에 레만은 여전히 런던에 머물고 있던 니버에게 편지를 보내어, 자신이 수행한 이러한 일들을 보고한다.

58) Ibid., 218.

59) Ibid., 223.

60) Ibid., 219.

다) The Letters between Lehmann and Bonhoeffer

이러한 니버와 라이퍼, 레만의 노력으로 본회퍼는 1939년 6월 4일에 독일을 떠나 영국에 3일간을 머물다가 6월 7일에 뉴욕 행 배에 올라 6월 12일에 뉴욕에 도착한다. 다음 날 라이퍼와 아침을 함께 하면서 본회퍼는 자신이 왜 뉴욕에 왔는가와 얼마나 뉴욕에 머물 것인지에 대하여 오해가 있었음을 발견한다. 라이퍼와 만난 자리에서, 그리고 그 직후 레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러한 오해에 대해 말하면서 본회퍼는 두 가지를 분명히 한다. 하나는 자신은 니버나 라이퍼가 받아들였듯이 정치적 망명자가 아니며, 독일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에 돌아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독일은 자신과 같은 선생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은 뉴욕에 2년이나 3년 동안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여름에 유니온에서 계획되어 있는 강의가 끝나면 가을에나 늦어도 새해가 시작되면 바로 독일로 돌아갈 것이다.⁶¹⁾

사실 이 편지를 보내기 전에 본회퍼는 라이퍼에게 6월 15일에 보낸 장문의 편지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면서, 라이퍼의 조언을 구한다. 이 편지에서 본회퍼는 자신이 독일을 떠나 올 때 고백교회가 자신이 떠나는 것을 꺼려했으나, 미국에서 여러 신학자와 목회자를 만나는 일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고백교회에서 볼 때 본회퍼의 미국 방문은 독일에 고립되어 있는 고백교회와 미국교회들 간의 에큐메니컬한 차원의 다리를 놓는 것이었다. 이것이 본회퍼 자신이 미국에 온 첫 번째 이유다. 자신의 군 소집을 피하려는 목적은 이차적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본회퍼는 자신이 망명자도 아니며 가능한 한 빨리 독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힌다. 그런데 본회퍼가 독일을 떠나기 전에 있었던 여러 대화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으므로,

61) Ibid., 222.

본회퍼는 이에 관한 일, 특별히 자신이 독일로 돌아가는 일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러한 생각에서 본회퍼가 가장 염려했던 바는 라이퍼가 제안한 망명자들을 위한 일에 관해서다. 본회퍼는 망명자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임을 직시한다. 이미 영국에서 목회할 시에 이러한 일을 본회퍼는 맡은 경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기쁜 일임을 고백한다. 본회퍼의 걱정은 독일에 남아 있는 독일 국민들에 대한 충성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본회퍼는 미국에 남아서 망명자들을 돌보는 일을 택하게 되면, 자신이 독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한다. 그래서 본회퍼는 라이퍼에게 망명자를 위한 일이 자신이 독일로 돌아가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를 묻는다.⁶²⁾ 그와 동시에 본회퍼는 1940년 이후로 제네바의 세계교회협의회에서 난민 구조를 위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던 Adolf Freudenberg 박사에게 조언을 구한다. Freudenberg 박사는 본회퍼에게 만일 독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난민을 위한 사역을 맡지 말라고 조언한다.⁶³⁾ 본회퍼는 이 조언을 받아들인 듯하고, 그 결과를 먼저 라이퍼에게, 그리고 그 후에 앞에서 적었듯이 레만에게 편지로 알린다.

이 소식을 듣고 레만은 걱정을 많이 한다. 이미 니버로부터 들어서 레만은 본회퍼가 독일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39년 6월 28일에 본회퍼에게 보낸 편지에서, 레만은 본회퍼를 설득시켜 뉴욕에 남아있게 하고자 한다. 이 편지에서 레만은 적어도 본회퍼가 미국에 당분간 머물러 있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적는다.⁶⁴⁾ 첫째는 신학적 이유다. 베트게에 따르면 본회퍼가 일찍 돌아감으로써, 미국의 신학계는 본회퍼에 의해 제

62) Ibid., 242~245.

63) Ibid., 245~246.

64) Ibid., 225.

공될 수 있는 신학적 공헌에 의해 보다 풍성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본회퍼는 이러한 기여도 자신이 독일에 돌아가 선생으로서 공헌하려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책임임을 알아야 한다. 둘째, 공적인 이유다. 니버의 부탁을 받고 레만은 이미 본회퍼를 위해 자신이 재직하던 엘름허스트 칼리지에 네 주에 걸쳐 진행되는 사순절 설교를 마련해 놓았는데, 본회퍼가 돌아가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사적인 이유다. 즉 레만과 레만의 부인 마리온이 본회퍼를 너무도 그리워한다. 그래서 본회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레만과 그의 부인에게 너무도 슬픈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레만이 본회퍼를 설득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본회퍼 역시 레만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 레만의 기대와 달리 이 편지에서 본회퍼는 독일의 정치 상황이 아주 끔찍해서, 이미 자신이 미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8월 2일이나 7월 25일에) 독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다.

7월 27일에 이미 본회퍼는 베를린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니버는 본회퍼를 위한 또 다른 사역을 영국에 준비하고 있었다. 유니온 신학교의 동료였고, 에딘버러(Edinburgh) 대학에 재직하던 Baillie 교수에게 본회퍼를 위한 강연을 부탁했던 것이다. 니버의 부탁을 받은 베일리 교수는 1939년 6월 15일에 본회퍼에게 편지를 보내어 1939년 겨울에 에딘버러에서 크로올 강연(Croall Lectures)을 해 줄 것을 제안한다.⁶⁵⁾ 본회퍼는 1939년 7월 22일에 보낸 답신에서 베일리 교수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다시 1939년 8월 24일에 보낸 편지에서 강의 주제를 “기독교 메시지에서 죽음(the death in the Christian message)”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베일리 교수에게 알려준다. 하지만 1939년 9월에 2차 대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회퍼는 이 강연을 하지 못한다. 마지막 하려고 했던 죽음에 관한

65) Ibid., 249.

신학적 강연 대신에, 스스로가 죽음의 길로 향하고 만다.⁶⁶⁾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본회퍼를 구하기 위해 니버는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였다. 그래서 Bethge는 “니버가 본회퍼가 미국에 가는 일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⁶⁷⁾ 하지만 니버의 노력은 본회퍼 스스로의 선택과 나치에 의한 체포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2. 종교개혁 없는 개신교(Protestantism Without Reformation)

1939년 6월 12일에 뉴욕에 도착한 본회퍼는 자신의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6월 13일에 Leiper 박사와 아침 식사를, 그리고 당시에 유니온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Van Dusen과 점심을 함께 한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본회퍼는 지난 8~9년간 미국 신학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놀란다. 그 핵심은 본회퍼가 1930년에 목격했던 낙관적인 진화론(evolutionism)의 논의가 사라지고, 인간의 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⁶⁸⁾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단순히 문화적인 위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낙관적인 견해에서 엄세적인 견해로의 변화인가? 이러한 변화에서 예수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진지한 논의들은 일어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의 결과로 본회퍼는 “종교개혁 없는 개신교(Protestantism Without Reformation)”라는 에세이를 적게 되는데, 뉴욕에 머무는 동안 기초를 놓았고 독일로 돌아오는 길에 방문한 런던에서 완성한다.

이 에세이는 “교회의 일치와 교파들,” “기독교인들의 피난처,” “자유,”

66) Ibid., 250.

67) Bethge, *Dietrich Bonhoeffer*, 639.

68) Bonhoeffer, *The Way to Freedom*, 93.

“교회와 국가,” “흑인 교회,” 그리고 “신학”의 여섯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1931년에 작성된 유니온 신학교에서의 경험에 대한 보고서에서 본회퍼는 신학적 우월의식에서 미국의 전반적 신학과 교회의 분위기를 자유주의 혹은 종교로 보았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종교개혁 없는 개신교”에서는 사회학적이고 에큐메니컬 운동 시각에서 미국 교회와 신학을 평가하면서, 독일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가 대화의 파트너로서 서로의 다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에큐메니컬 운동에 관심이 없던 1930년과 그 후 활발한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한 차이와 더불어, 이러한 관점의 변화에는 본회퍼의 맥락주의(contextualism) 시각의 영향이 있는 듯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다른 시대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의 교회에게 그리고 미국의 교회와 더불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미국 교회를 통해] 우리 [독일 교회]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 미국 교회에 무엇을 하고 계신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에큐메니컬 운동의 시각에서, 예를 들어, 본회퍼는 교회의 일치(unity)와 교파의 다양성(multiplicity)을 대조한다. 그에 따르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미국은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교회의 보이는(visible) 일치를 실현하지 않고 있는 나라이다. 이 교회의 일치 대신에 미국에는 다양한 교파들(denominations)이 존재한다. 미국에는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앙 집권적인 조직, 공통 신조, 공통 예식, 공통의 교회사, 그리고 공통의 윤리적, 사회적 원리가 없다.⁶⁹⁾ 대신에 공통의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경험에 기초한 자유 연합체(free association), 혹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동체로서의 다양한 교파들이 있다. 반면에 종교개혁의 교회들은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참된 교회만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는 오직 이

www.kci.go.kr

69) Bonhoeffer, *No Rusty Swords*, 94.

하나의 교회만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참 교회로 생각하기 때문에, 분열은 이 교회에 불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미국의 교파들은 이러한 교회의 일치를 하나님에 의해 본질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미래에 실현될 하나의 목적(goal)으로 생각한다.

한편으로 본회퍼는 이러한 차이를 유명론(nominalism)과 보편실재론(realism)의 차이로 설명한다.⁷⁰⁾ 유명론에서는 개별적인 것과 경험으로 주어진 것이 참된 실재로 생각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것이 전체에 선행하며, 개인들의 통일체는 목적으로 추구된다. 반면에, 보편실재론에서는 전체가 원초적인 실재(reality)이며 개별적 존재는 파생적(derivative)이다. 그러므로 전자에서는 개인들의 공동체로서 교파가, 그리고 후자에서는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서의 교회가 우선된다. 다른 한편 본회퍼는 다양성과 개별성을 강조하는 미국 교파의 출현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의 피난처였다는 역사적 이유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다양한 교파들의 근원은 개신교도(Protestant)가 박해 때문에 자의나 타의에 의해서 유럽으로부터 탈출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신교(Protestantism)에서는 자유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공통의 조직과 신조를 통한 일치가 회피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연유로 미국은 다양한 교파들이 존재하는 개신교(Protestantism)의 대표적인 땅이 되었고, 관용(tolerance)이 교회의 기본정신이 되었다.⁷¹⁾ 본회퍼는 미국교회와 독일교회의 이런 차이들이 에큐메니컬 운동에 중요한 대화의 시각을 제시한다고 본다. 먼저 미국의 교파들은 독일의 교회에게 교회들의 다양성에 관한 질문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오직 고백적인 교회만이 참 교회이고, 미국의 교회들은 단순히 고백적이지 않기 때문에

70) Ibid., 97-98.

71) Ibid., 103.

교회가 아닌가?”라고 질문한다. 반면에 독일의 교회는 미국의 교파들에게 교회의 일치의 문제를 제기한다. 예를 들어, “교회들의 다양성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 그리하여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사실(fact)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⁷²⁾

이와 더불어 본회퍼의 미국 신학에 대한 평가도 1930년 초의 그것보다는 훨씬 긍정적으로 보인다. 뉴욕에 머무르는 동안, 그는 Christian Century에 열 차례 연재된 “어떻게 나의 마음이 바뀌었는가?(How My Mind Has Changed?)”를 분석하게 된다. 이 연재물의 분석을 통해, 본회퍼는 미국의 신학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발견한다. 예컨대, 근대주의나 인문주의에 표현된 세속주의(secularism)로부터 위대한 계시(revelation)의 사실에로의 전환이 일어났다. 또한 1930년대 초기에는 사회복음(social gospel)을 강조하던 미국 신학자들이 교의학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본회퍼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예전의 사회질서의 붕괴와 신학을 지배했던 진보에의 낙관적 믿음에 대한 비판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당시의 세계 위기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조가 이러한 낙관주의를 대신하였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⁷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퍼에 의하면, 미국의 기독교와 신학은 신학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기독교론(christology)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예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라인홀드 니버이다. 본회퍼에 따르면 니버는 당대 미국 신학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창조적인 한 사람으로, 당대의 미국 교회와 사회에 대한 예리한 비판가였다. 여러 해 동안 니버의 십자가와 역사의 종말에 대한 강조와 정치신학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니버는 옳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절망의 근거

72) Ibid., 98.

73) Ibid., 115.

라 주장하는 신정통주의(neo-orthodoxy)와 그리스도가 인간의 규범이며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참 자유주의(genuine liberalism) 양자 모두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니버의 신학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구원 사역의 교리”를 결여한다.⁷⁴⁾ 결과적으로 미국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과 용서의 근거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는 여전히 “본질적으로는 종교이며 윤리”이다.⁷⁵⁾ 이러한 근거에서 본회퍼는 미국의 기독교를 “종교개혁 없는 개신교”라 칭하였던 것이다.

3. 순교자(Martyr) 본회퍼: 니버의 본회퍼 평가

앞에서 보았듯이 니버와 레만의 헌신적 노력으로 본회퍼는 뉴욕에 도착한다. 그가 원했다면 니버가 적었듯이 난민, 혹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망명자로 안전하게 뉴욕에 머무를 수 있었다. 하지만 본회퍼는 뉴욕에서의 안전을 택하지 않는다. 사실 뉴욕으로 향하는 배에 탄 직후부터 본회퍼는 “항수병”과 “양심”의 문제로 고뇌한다. 그 핵심은 정치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고난 받고 있는 친구들과 독일국민들을 남겨두고 자신만 안전한 장소에서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양심의 문제였다. 예를 들어 뉴욕에 도착한 첫날부터 본회퍼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으나, 오직 독일의 형제들만이 없다. 최초로 외로운 시간들이 너무도 견디기 힘들다. 나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것이 현명한 일이었는지, [그리고] 이 일의 결과가 가치 있는 것이겠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적는다.⁷⁶⁾ 이러한 양심의 고뇌 끝에 본회퍼는 자신이 뉴욕에 온 것을 잘못된 일로 규정하면서, 다시 독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린다. 1939년 7월 7일 뉴욕

74) Ibid., 116.

75) Ibid., 117.

76) Bonhoeffer, *A Testament to Freedom*, 469.

을 떠나기 직전에 니버에게 보낸 편지에서, 본회퍼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여기 코핀(Coffin) 박사의 정원에 앉아서, 나는 나의 상황과 독일의 상황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혀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미국에 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독일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우리 민족 역사의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이 힘든 시기를 나의 백성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 이후 독일에서의 기독교적 삶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고백교회의 내 형제들이 내가 [미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그렇게 하도록 재촉한 것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개개의 인간은 그러한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독일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문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신들의 나라가 패망하기를 바라거나 자신들의 나라가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기독교 문명이 파괴되기를 바라는 끔찍한 양자택일의 운명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이러한 양자택일의 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전함 가운데서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77)

결국 독일에 남아 있던 동족들의 고통에 대한 양심의 목소리 때문에, 본회퍼는 뉴욕의 편안함과 안전함이 아니라, 동족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 독일에서 기다리는 죽음의 길을 선택한다. 1943년 12월 22일 테겔(Tegel) 감옥에서 베틀게(Bethge)에게 보낸 편지에서 본회퍼는 “지금 나는 자네[베틀게]가 내가 1939년에 돌아온 것이나 그로 인해 생긴 결과들에 대해서 한 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다는 것을 믿어주시기를 바라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잘 알고 있었고, 분명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했네.”라고 적음으로써,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증언한다.78) 결국 하나

77) Bonhoeffer, *The Way to Freedom*, 246.

님 앞에 선 양심 때문에, 본회퍼는 독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것이다. 그리고 독일에 남아 고통당하던 형제들, 보다 구체적으로는 히틀러에 의해 고통당하던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죽음의 길을 택했다. 바로 이러한 형제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것이 본회퍼 자신의 확신이었다.

니버는 이러한 본회퍼의 결단에 경외의 감정을 피력한다. 앞에서도 서술했듯이 니버는 1939년에 영국에서 직접 본회퍼를 만나서 가졌던 대화를 기억하면서, 본회퍼가 독일로 돌아가야만 했던 이유가 독일의 교회와 국민들과 운명을 같이 하고자 한 그의 비장함에 있었음을 확인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회퍼가 히틀러 암살계획에 참여했음도 니버는 안다. 니버는 이러한 본회퍼의 태도가 기독교 순교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다시 말해 본회퍼의 삶과 죽음은 “기독교 순교의 연대기(annals)”이며,⁷⁹⁾ 그의 생애의 이야기는 “현대의 사도행전(modern Acts of the Apostles)”에 해당한다.⁸⁰⁾ 이러한 본회퍼의 순교자적 삶은 기독교적 헌신을 위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린다는 것이 니버의 평가이다.

V. 글을 맺으면서

1930년과 1931년에 처음으로 만났을 때, 본회퍼와 니버는 서로의 신학적 경향에 대하여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니버가 볼 때 본회퍼는 바르트를 충실히 따르는 사람이다. 그 결과 본회퍼는 하나님의

78) Bonhoeffer, *Letters and Papers from Prison*, 174.

79) Niebuhr, “Dietrich Bonhoeffer,” 3.

80) Niebuhr, “The Death of Martyr,” 6.

초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충분히 보지 못한다. 한 마디로 본회퍼는 사회, 정치, 경제적 문제들에 민감해야 할 사회윤리의식이 부족하였다는 평가다. 반면에 본회퍼가 볼 때, 니버의 신학은 지나치게 사회, 정치, 경제적 문제들에 천착함으로써,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한 마디로 말해 니버는 교의학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본회퍼가 볼 때, 교의학적 바탕이 없는 사회 윤리는 인간 중심주의이며 자유주의의 신학이다. 바르트의 용어를 빈다면, 이러한 경향은 진정한 신학이 아니라 종교의 일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교훈은 이러한 서로의 신학과 윤리에 대한 비판이 무의미한 관계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비판적 대화가 서로의 신학의 약점을 보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니버 등의 영향을 받고 독일로 돌아간 본회퍼는 자신의 신학을 행동화하는 사회 윤리적 삶의 전형을 보여준 신학자요 행동가가 되었다. 그래서 니버는 평가하기를, “[1930년에 본회퍼는] 우리 학생들이 깊은 관심을 가졌던 정치적 문제들이 대체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무관하다고(irrelevant) 생각했다. [하지만] 독일로 돌아간 직후에 그는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이슈들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 때 매우 비정치적이었던, 그가 아주 예리한 정치 분석가가 되었다.”⁸¹⁾ 즉 니버와 뉴욕의 여러 경험으로부터 사회윤리에 대한 민감한 관심을 배워 본회퍼는 결국 사회적, 정치적 삶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니버는 본회퍼에게서 신학(교의학)의 중요성을 배운다. 이 신학의 내용은 본회퍼가 전해준 바, 자유주의 신학의 한계, 곧 인간에 대한 한계 의식이다. 다시 말해 본회퍼의 시각에서 여전히 기독교론의 부재를 보이지만, 니버는 인간의 죄인 됨에 대한 깊은 신학적 통찰을 얻게 된다. 결국 본회퍼를 통해 니버는 그가 기포드

www.kci.go.kr

81) Niebuhr, “Dietrich Bonhoeffer,” 3.

강연, 즉 『인간의 본성과 운명』(*The Nature and Destiny of Man*)에서 주장한 인간의 한계와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전개하는데 도움을 얻은 듯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니버의 전기 작가인 팩스(Richard Wightman Fox)에 따르면, “본회퍼는 니버에게 만일 자신의 비판가들에 대항하여 자신을 보다 더 설득력 있게 옹호하고자 한다면 신학을 보다 더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한 사람”이라고 적고 있다.⁸²⁾

마지막으로 본회퍼와 니버의 이러한 교류가 오늘 우리의 상황에 주는 교훈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신학적 대화의 중요성이다. 예전이나 특히 오늘날에는 모든 학문에 정통할 수 있는 천재는 있을 수 없다. 끊임없는 학제적인(interdisciplinary) 대화를 통하여 서로를 자극하며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때때로 이 대화는 서로 다른 교단에 속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사이의 대화도 포함한다. 본회퍼와 니버가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대화를 통해 대화의 참여자들은 서로에게서 배움으로써 보다 창조적인 신학과 윤리의 지혜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둘째는, 균형의 회복이다.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이 균형은 이론신학과 윤리의 균형이다. 교회적으로 말한다면, 이 균형은 신앙과 사회적 실천의 균형이다. 오늘 한국교회는 한 마디로 위기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 위기는 개인 차원에서는 “기복신앙”으로, 교회차원에서는 “성장지상주의”로 나타나는 “자본주의적 신앙”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 상실”로 대변되는 적합한 사회 윤리의 부재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회퍼와 니버의 신학적 대화와 서로에 대한 배움은 바른 신학의 회복과 바른 삶의 회복을 한국교회에 동시에 요청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이 바른 신학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며, 바른 삶은 교회의 정치

www.kci.go.kr

82) <http://speakingoffaith.publicradio.org/programs/niebuhr-rediscovered/timeline.shtml>

적,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며 돌봄이다. 물론 이 둘은 불가분리의 균형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복음의 의미를 발견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은 사회 속에서 보다 책임 있는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며, 동시에 바른 사랑의 삶을 위해 복음의 의미에 깊이 천착하는 신학이 요청된다. 칸트의 표현을 빈다면, “윤리(사회적 삶) 없는 신학(신앙)은 공허하고, 신학 없는 윤리는 맹목이다.”

참고문헌

- Bethge, Eberhard. *Dietrich Bonhoeffer: A Biography(Revised Edi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0.
- _____. “The Challenge of Dietrich Bonhoeffer’s Life and Theology.” *The Chicago Theological Seminary Register* LI, no. 2(1961): 1~38.
- Bonhoeffer, Dietrich. *Barcelona, Berlin, New York 1928~1931*(Dietrich Bonhoeffer Works, Vol.10). German ed. Reinhart Staats and Hans Christoph von Hase, English ed. Clifford J. Green, trans. Douglas W. Stott.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8.
- _____. *London 1933~1935*(Dietrich Bonhoeffer Works, Vol.13). German ed. Hans Goedeking, Martin Heimbucher, and Hans-Walter Schleicher, English ed. Keith Clements, trans. Isabel Best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 _____. *Letters and Papers from Prison: The Enlarged Edition*. Ed. Eberhard Bethge (New York: Touchstone), 1997.
- _____. *A Testament to Freedom*. Ed. Geffrey B. Kelly and F. Burton Nelson (New York: Harper-Collins), 1995.
- _____. *A The Way to Freedom: Letters, Lectures and Notes 1935~1939 – From the Collected Works of Dietrich Bonhoeffer*(Vol.II). Ed. Edwin H. Robertson. Trans. Edwin H. Robertson and John Bowden (New York: Harper and Row), 1966.
- _____. *No Rusty Swords: Letters, Lectures and Notes 1928~1936 – From the Collected Works of Dietrich Bonhoeffer*(Vol.I). Ed. Edwin H. Robertson, Trans. Edwin H. Robertson and John Bowden (New York: Harper and Row), 1965.
- Green, Clifford J. “Editor’s Introduction to the English Edition.” In Dietrich Bonhoeffer, *Barcelona, Berlin, New York 1928~1931*(Dietrich Bonhoeffer Works, Vol.10), German ed. Reinhart Staats and Hans Christoph von Hase, English ed. Clifford J. Green, trans. Douglas W. Stott, 1~50.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8.

Kelly, Geoffrey B. “An Interview with Jean Lasserre.” *Union Seminary Quarterly Review* 27, no.3(1972): 149~160.

_____. and Nelson, F. Burton. “Editor’s Introduction—Solidarity with the Oppressed: Bonhoeffer the Man.” In *A Testament to Freedom: The Essential Writings of Dietrich Bonhoeffer*, ed. Geoffrey B. Kelly & F. Burton Nelson, 1~44. (San Francisco: Harper San Francisco), 1995.

Niebuhr, Reinhold. “Dietrich Bonhoeffer.” *Union Seminary Quarterly Review*, no. 1.3(1946): 3.

_____. “The Death of Martyr.”(이 에세이의 출처는 확인할 수 없음)

Lehmann, Paul L. “Commentary: Dietrich Bonhoeffer in America.” *Religion in Life* 30, no.4(1961): 616~618.

Rasmussen, Larry. *Dietrich Bonhoeffer: Reality and Resistance* (Nashville: Abingdon Press), 1972.

Zemer, Ruth. “Dietrich Bonhoeffer’s American Experiences: People, Letters, and Papers from Union Seminary.” *Union Seminary Quarterly Review* 31, no.4(1976): 261~282.

논문접수일: 2008. 10. 30

심사개시일: 2008. 11. 15

심사완료일: 2008. 11. 22